

2006년도 세계 가금류 시장 전망

최근 미국 농업부(USDA)는 2006년도 세계 축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는 축산물 생산, 공급, 유통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 개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어서 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소비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환경이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농업부는 주요 축산물 생산 국가들에서 육류 가공 및 생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도축시설 건립이나 현대화, 사육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이 축산물 생산과 가공부문의 성장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못한다. 인도네시아의 가금류 부문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에너지 비용 급증, 환율 하락, 사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이 최소화될 것이며 성장이 제약될 것이다.

2006년도의 1인당 세계 실질 GDP가 증가함으로써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국, 홍콩, 태국완, 태국 등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소비자들의 가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육류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육류 수출국가들의 수출 가격은 질병과 관련된 무역 왜곡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발병은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주요 가

금류 및 쇠고기 수출국가들의 무역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의 수출 가격이 지난 두 해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환율 조건으로 인해 미국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환율 약세로 인해 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수출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축산물 수출 국가들의 닭고기 수출이 쇠고기 수출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주요 수출국들의 닭고기 수출액이 7,500만톤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시장에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 증가세 또한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금육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에는 가금육 무역량이 거의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태국, 미국 등이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 가금육 생산 전망

주요 가금육 생산국가들에서의 생산량은

2006년도에 거의 4% 증가하여 6억5,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중국, 인도,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생산도 회복될 전망이다.

2006년도에 고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구하고, 사료가격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가금육 부문 산업의 전후방 통합과 집중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가금육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2006년도의 전 세계적인 닭고기 생산 증가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의 생산 증가분 중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지만, 수출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또한 닭고기 생산증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국가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생산량은 2006년에 5% 증가하여 9,5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두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이 같은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출 경쟁국들이 일본 등의 여러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브라질은 일본에의 닭고기 수출량을 35%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소비 수요 또한 브라질의 육계산업을 뒷받침



하고 있다.

멕시코의 닭고기 생산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22% 증가하여 약 2,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멕시코내에서의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멕시코의 가금육 관련 산업은 점점 더 집중화, 현대화,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증대하는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왔다.

멕시코 가금육 소비가 증가해 온 요인으로는 인구증가, 여타의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가금육 가격, 효과적인 마케팅, 가공식품 이용 증대, 품질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U의 가금육 생산은 2003년 베네룩스 3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감소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는 있으나, 전체 25개 EU 회원국들의 생산자들과 가공업자들은 EU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다.

EU의 닭고기 생산은 2006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7,70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해 소비는 느리지만 생산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EU의 닭고기 수입은 거의 5%까지 증가해 46만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닭고기 생산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해왔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약 8%

증가해 2006년 생산량은 1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닭고기 산업 부문의 수익성이 좋고, 국내 시장에서의 닭고기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며, 새로운 수출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같은 남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정부의 도태 명령이나 수출 시장 상실 등과 같은 경제적 충격을 견딜만한 자본을 갖지 못한 중소 생산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태국의 가금육 재고량은 20~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태국의 중소규모 가금육 생산자들 중 23% 정도가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에 태국의 닭고기 생산은 110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직전인 2003년 생산량보다 16% 적은 규모이다.

인도네시아의 닭고기 생산 또한 2006년에는 67만2천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2003년 생산 수준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3. 가금육 소비 전망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있는 국가들에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구매량이 늘어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많은 국가들에서 국내 소비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정보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육류나 낙농 제품 같은 고가의 식품 구매 지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육류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지구적인 수준에서 전망되는 가금육 소비 증가는 한 국가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몇몇 국가들에서 닭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증가율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도 대비 2006년의 닭고기 소비 증가율이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들은 브라질(4%), 중국(3%), 인도(16%), 멕시코(5%), 러시아(7%) 등이다. 미국의 경우 3%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소비 국가들에서의 소비 증가분 중 2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질병 성격과 예방 수단에

를 접하게 되면 일차적인 소비수준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국내 소비 급감 이후, 2005년에는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산 가금육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2006년에는 7% 증가하여 76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금육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증대하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육류상품에 비해 가금육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가금육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면서 그 수요가 2005년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람의 사망 사고 직후의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2005년 7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직후에 인도네시아의 가금육 소비는 20% 감소한 바 있다.



4. 무역

1) 동물질병의 영향

동물질병이 발생함으로써 무역이 제한되는 사례들은 전통적인 무역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태들이 어떤 공급 국가들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지만 새로이 떠오르는 생산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태국과 중국의 가금육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수입금지 조치 이후, 브라질은 일본 닭고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아시아권 여러 국가들로부터의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의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은 일본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구매량을 늘리게 된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2) 가금육 무역 전망

2006년은 주요 가금육 수출국가들의 수출 총량이 740만톤을 넘어서는 해가 될 것이다. 이는 2005년에 비해 거의 7%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태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의 가금육 무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2006년도에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 중에서도 수출 시장 점유율 34%를 유지하는 선도

적인 국가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지만, 그 위치는 점점 침식당할 것이다. 2001년에 미국은 닭고기 수출 시장 점유율 45%를 기록했었다. 2006년 미국의 닭고기 수출은 2% 정도 증가하여 2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태국의 닭고기 수출은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2006년에는 2005년의 1/3 수준까지 회복하여 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태국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가공 시설에 투자하는 등 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태국이 수출 회복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태국산 닭고기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EU 같은 태국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에서 가공된 닭고기 상품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가공 닭고기 상품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 같은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2006년에 7% 증가하여 300만톤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브라질은 최근 3년간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닭고기 수출 국가가 될 전망이다. 🇧🇷

본고는 미국 농업부(USDA)에서 발표한 '2006년도 세계 육류시장 전망' 중 '가금류 시장 및 소비 동향'에 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